

# 계사내 온도, 환기, 방역에 만전

—편집부—

**최**근 양계장에서는 규모에 상관 없이 질병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병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뉴캣슬, 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다양한 병명을 보이는데 어느 질병이나 일단 발병하면 치유책이 없이 도태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미 예상 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사전에 사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중 조절에 실패하거나, 환기가 불량하여 닭이 약해져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병아리 때부터 철저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초생추 사양관리

일반적으로 병아리 때의 사양관리는 그린대로 철저히 하는 셈이다. 다만 품종개량, 사료 영양 수준, 계사환경이 종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에 따라 사양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이 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병아리의 사료급여량은 사료의 영양수준, 품질, 발육상태,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지만 배합사료를 급여할 때에는 발육 정도에 따라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급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의 여건상 사양관리자가 보다 합리적인

**표1. 체중과 사료섭취량**

표준체중	갈색 계		
	일	주 간	누 계
90	10	70	70
160	16	112	182
220	25	175	357
290	31	217	574
380	37	259	833
470	41	287	1,120
560	45	315	1,435
650	49	343	1,778
730	52	364	2,142
820	54	378	2,520
900	57	399	2,919
980	60	420	3,339
1,040	63	441	3,780
1,130	66	462	4,242
1,220	69	483	4,725
1,300	72	504	5,229
1,400	75	525	5,754
1,480	78	546	6,300
1,560	82	574	6,874
1,640	87	609	7,483

\* 봄, 가을기준(품종, 사양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2. 병아리 음수량**

주 령	100수당 1일(l)	주 령	100수당 1일(l)
1	1.9	7	10.5
2	3.8	8	11.3
3	4.5	9	13.2
4	6.4	10~13	14.3~15.1
5	8.3	13~22	15.8~17.0
6	9.4		

관리 지식이 있다면 생각하는 대로 계균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만큼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사양관리에 임해야 하리라고 본다.

어린 병아리란 첫모이 주기부터 5~6주령의 폐온시까지의 병아리를 말하며, 이 시기는 병아리의 폐사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사양관리 결과가 병아리 발육에 큰 영

향을 미치며 성계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갓 부화된 병아리가 육추사에 오는 동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충분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아리가 도착하기 전 육추사 입구에는 반드시 소독판을 설치해야 하고 소독판에는 크레졸 3%액 또는 승홍수(염화제2수은 :  $HgCl_2$ )를 500~1,000배로 희석한 소독액을 넣는다. 그리고 육추에 사용할 연료, 자리지, 소독약, 전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물은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병아리의 첫모이는 부화 후 48시간 이전 노른자가 70~80% 정도 소화되었을 때 주는 것이 좋으며 발생차가 심할 때는 먼저 나온 것을 기준하면 되는데 첫모이를 너무 일찍 주면 노른자 소화가 늦어져 식체가 생길 수 있다.



표3. 병아리의 체온 및 육추표준온도

일령	체온	주령	삿갓 끝의 온도
1	39.7°C (103.5°F)	0~1	35.0°C (95°F)
2	40.0 (104 )	1~2	32.2 (90°F)
4	40.6 (105 )	2~3	27.8 (85°F)
5	40.8 (105.5 )	3~4	26.7 (80°F)
10	41.1 (106 )	4~5	23.9 (75°F)
성계	41.2 (106.2 )	성계	20°C 이하

반드시 첫모이 주기 전에 온수를 주고 1~2시간 잠을 재우고 물에는 항생제를 0.1% 정도 타서 급수하면 된다.

첫 1주일 간의 사양관리는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폐사율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온도, 습도 및 환기에 유의하여 약추 발생을 막아야 한다.

1주일 후부터 폐온시까지는 온도를 점차 맞추면서 습도조절에 유의하고 사료도 모이통에 주어 환경 오염방지에 주력하고 각종 질병예상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깃털이나 항문을 쪼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부리자르기도 실시한다.

표4. 중추의 사료영양 수준별 급여기준량(7~14주)

구분	주령별 표준체중 사료량	ME (Kcal/kg)		2,650		2,750		2,850		2,950	
		CP (%)	15.1	1 일	2주간						
백	8	627	4	0.68	47	0.66	45	0.63	44	0.61	
색	10	788	56	0.78	54	0.75	52	0.73	50	0.70	
계	12	925	61	0.85	59	0.82	56	0.79	55	0.76	
	14	1,040	65	0.90	62	0.87	60	0.84	58	0.81	
갈	8	698	50	0.70	48	0.67	46	0.65	45	0.63	
색	10	859	54	0.76	52	0.73	50	0.70	48	0.68	
계	12	1,014	60	0.83	57	0.80	55	0.78	54	0.75	
	14	1,164	65	0.91	63	0.88	61	0.85	59	0.82	

(축산시험장, 1983)



## 2. 중추 사양관리

증추시기(7~14주령)는 성장율이 떨어지면서 몸이 충실해지는 시기로 골격 발달이 아주

좋아 초생추 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낮아지나 에너지의 요구량은 증가하므로 약 7주령부터는 사료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사료 교체는 7~10일간에 걸쳐 서서히 섞어가며 교체해야 스트레스가 적어진다. 모이는 자유급식을 시키고 급이기에 1/3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병아리가 7주령이 되면 육추기에서 중추사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맑은 날과 따뜻한 날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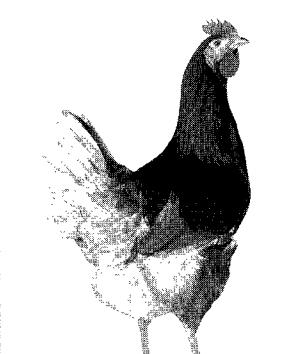
### 3. 대추 사양관리

3개월경 이후부터 초산시에 이르는 병아리를 대추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충분한 운동

을 하도록 하여 초산시 체중이 대개 1.4kg 정도로 155~160일령에 50%가 산란을 하도록 조절한다. 대추기의 발육속도는 중추에 비해 떨어지므로 사료 중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열량이 높은 에너지 사료를 증가시킨다.

닭은 4~5개월이 되면 대추는 벗과 고기수염이 상당히 크고 선적색을 나타내며 산란할 준비를 갖추므로 늦어도 120일령 이전에 산란 계사로 이동시켜야 한다. 산란용 사료로의 변경은 초산일령이 빠르고 늦음에 따라 적절히 대체해주나 평균 5~10% 산란에 도달했을 때 단백질과 칼슘함량이 높은 산란용 사료로 완전히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현대가금학, 신편가금요론) [정재]

최고의 성적  
최고의 경제성



ISA

# 동 서 중 추 농 장

중추 전문업체인 동서축산이  
신기부화장의 후원으로  
철저한 육성관리와 방역으로  
건강한 중추를 보급하겠습니다.

- 특란형 하이라인
- 이사브라운

- 위탁 사육
- 초생추 분양

사무실 : (0333)665-2148, 667-0772

농 장 : (0417)581-4745

휴대폰 : 011-345-8148, 011-350-8239

호출기 : 012-849-8148